



제이오컴퍼니 안마기 'KW-7000 힐링 이지유'

“복대처럼 허리 감사는 안마기로 1인 가구 흘렸죠”

소형 안마기를 사용할 때 대개 손으로 안마기를 잡고 있어야 한다. 어깨 등에 가만히 대고만 있기 어렵고 방향도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형 안마기업체 제이오컴퍼니의 신대근 대표는 생각했다.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제품은 없을까?’

그리고 지난 2월 ‘KW-7000 힐링 이지유’를 선보였다. 허리와 골반을 감싸는 U자 형태의 안마기다. 콘셉트는 ‘당신은 쉬기만 하세요. 기존 제품은 신체에 걸치는 방식인 반면 이 제품은 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안마기를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 기능도 접목했다. 안마를 받으며 편하게 독서할 수 있도록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달았다.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안마 도중 일어나지 않도록 휴대폰 충전용 USB 단자도 넣었다.

신 대표는 “일에 지쳐 집에 돌아왔는데 안마기를 작동하면서 더 지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편리한 데다 스마트 기능까지 추가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차이’로 승부
이 업체 제품은 어깨 안마기, 발마사지기 등 30여종에 달한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게 신 대표의 경영철학이다. KW-7000 힐링 이지유는 스마트

기능을 접목했지만 9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헬스케어 전문업체로 도약’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신 대표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자체 브랜드 ‘힐링큐’를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 대표는 “OEM 판매 비중은 전체의 10% 정도”라며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자체 브랜드로 인지도를 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레그모아의 뷰티레그체형기(053)566-6859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051)582-1088 △제이오컴퍼니의 KW-7000 힐링 이지유(02)706-5889 △착한음식의 야외에서 불없이 먹는 즉석밥(063)214-2447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레그모아의 뷰티레그체형기(053)566-6859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051)582-1088 △제이오컴퍼니의 KW-7000 힐링 이지유(02)706-5889 △착한음식의 야외에서 불없이 먹는 즉석밥(063)214-2447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레그모아의 뷰티레그체형기(053)566-6859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051)582-1088 △제이오컴퍼니의 KW-7000 힐링 이지유(02)706-5889 △착한음식의 야외에서 불없이 먹는 즉석밥(063)214-2447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레그모아의 뷰티레그체형기(053)566-6859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051)582-1088 △제이오컴퍼니의 KW-7000 힐링 이지유(02)706-5889 △착한음식의 야외에서 불없이 먹는 즉석밥(063)214-2447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레그모아의 뷰티레그체형기(053)566-6859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051)582-1088 △제이오컴퍼니의 KW-7000 힐링 이지유(02)706-5889 △착한음식의 야외에서 불없이 먹는 즉석밥(063)214-2447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레그모아의 뷰티레그체형기(053)566-6859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051)582-1088 △제이오컴퍼니의 KW-7000 힐링 이지유(02)706-5889 △착한음식의 야외에서 불없이 먹는 즉석밥(063)214-2447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레그모아의 뷰티레그체형기(053)566-6859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051)582-1088 △제이오컴퍼니의 KW-7000 힐링 이지유(02)706-5889 △착한음식의 야외에서 불없이 먹는 즉석밥(063)214-2447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레그모아의 뷰티레그체형기(053)566-6859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051)582-1088 △제이오컴퍼니의 KW-7000 힐링 이지유(02)706-5889 △착한음식의 야외에서 불없이 먹는 즉석밥(063)214-2447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레그모아의 뷰티레그체형기(053)566-6859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051)582-1088 △제이오컴퍼니의 KW-7000 힐링 이지유(02)706-5889 △착한음식의 야외에서 불없이 먹는 즉석밥(063)214-2447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레그모아의 뷰티레그체형기(053)566-6859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051)582-1088 △제이오컴퍼니의 KW-7000 힐링 이지유(02)706-5889 △착한음식의 야외에서 불없이 먹는 즉석밥(063)214-2447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레그모아의 뷰티레그체형기(053)566-6859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051)582-1088 △제이오컴퍼니의 KW-7000 힐링 이지유(02)706-5889 △착한음식의 야외에서 불없이 먹는 즉석밥(063)214-2447



신대근 제이오컴퍼니 대표가 허리안마기 'KW-7000 힐링 이지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김희경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레그모아의 뷰티레그체형기(053)566-6859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051)582-1088 △제이오컴퍼니의 KW-7000 힐링 이지유(02)706-5889 △착한음식의 야외에서 불없이 먹는 즉석밥(063)214-2447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레그모아의 뷰티레그체형기(053)566-6859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051)582-1088 △제이오컴퍼니의 KW-7000 힐링 이지유(02)706-5889 △착한음식의 야외에서 불없이 먹는 즉석밥(063)214-2447

산후조리원·소방서 ‘두드린’ 안마의자

경기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아이랑 산후조리원’의 VIP룸에는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가 놓여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지친 산모와 보호자들이 틈틈이 안마의자에 앉아 근육을 풀어준다. 박성호 아이랑 산후조리원 이사는 “안마의자 때문에 일반실 대신 VIP룸을 찾는 산모도 많다”고 말했다.

국내 1위 안마의자 기업 바디프랜드는 요즘 안마의자의 쓰임새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마의자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공략 중이다. 과거에는 안마의자를 쓰고 싶어도 고가여서 엄

두를 못 낸 곳이 타깃이다.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판매 방식을 렌탈(대여)로 바꿔 사용자층을 확대했다.

최근 경기지역 소방서 9곳에 총 25대의 안마의자를 설치했다. 경기 군포시 비즈니스호텔 ‘파티엔’에도 총 40개 객실 중 11곳에 안마의자가 들어갔다. 제주 아모렉스 리조트 힐링센터에도 바디프랜드 안마의자가 놓였다. 인천 송도의 송도유니버시티클럽 또한 공사 중인 VIP룸에 안마의자를 설치할 예정이다.

안재광 기자 ahnj@hankyung.com

문구업체 스마트한 변신 중

모닝글로리는 지난해 4월 ‘테이크아웃 노트(사진)’를 내놔다. 노트에 필기하거나 메모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지인들과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다.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1차분 2만권이 매진될 정도였다. 이후 스프링노트, 메모지, 수첩 등으로 ‘테이크아웃’ 시리즈 품목을 잇따라 내놔다. 모닝글로리의 최근 6개월(작년 10월~올 3월) 매출은 직전 6개월보다 33% 급증했다.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입지가 좁아진 국내 문구업체들이 생존



을 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외에 진출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화연필은 기존 주력 제품인 연필부문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마킹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2011년 옥실이나 주방 등 타일 사이에 낀 때를 가려 주는 ‘타일줄눈마커’를 출시하

고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마케팅에 나섰다. 조선소나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페인트 마커’ 생산도 늘렸다. 문화연필의 산업용 마킹펜 매출 비중은 약 40%에 이른다. 연필의 매출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모나미는 의료용 마킹펜 ‘스킨라이너’와 타일 틈새를 메우는 ‘타일틈새마커’ 등으로 마킹펜 시장을 개척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표 상품 ‘모나미 153’의 프리미엄 버전을 내놓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만년필 생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여성경제인협회 모범 기업인賞 수상자



박병숙 집마스터 사장(왼쪽부터)과 김정희 김정희유니폼 기획 사장, 탁미경 컴포지션 사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신경준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남들 따라하기보다 섬세함·꼼꼼함으로 승부”

박병숙 집마스터 사장
김정희 김정희유니폼 사장
탁미경 컴포지션 사장

“남자들처럼 솔자리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오토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 기업인의 장점인 섬세함과 꼼꼼함, 부드러움을 무기로 열심히 뛰다보니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창립 16주년 기념식에서 모범 기업인으로 상을 받은 16명의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다.

서울지방국제정당상을 받은 ‘김정희유니폼-기획’의 김정희 사장은 20년째 자신의 이름을 내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녹색어머니회, 학교보안관 등으로 단체복과 관공서 근무복을 제작한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제품이 편하다는 것.

김 사장은 “신속성이 좋은 원단을 쓰고 마감 바느질까지 신경쓰기 때문에 활동하기 편하다”며 “까다로운 소비자로 꼽히는 주부를 상대하기 때문에 꼼꼼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된다”고 말했다. 매출 30억원 을 올리는 이 회사는 담뚃 등 행사용품 기획사업도 하고 있다.

박병숙 사장이 서울지방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집마스터는 경비·경호·청소 분야 근로

자를 과전하는 업체다. 거칠고 남성 중심적인 인력 아웃소싱 업계에서 창업 13년차를 맞은 박 사장은 “경쟁이 치열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경비 청소 등의 인력은 직급이 낮으면서도 대다수가 고령자”라며 “이들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날씨가 궂은 날엔 ‘조심하시라’는 안부전화를 꼬박꼬박 챙긴 게 비결”이라고 했다.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 덕분에 집마스터가 좋은 근로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지난해 매출 30억원 을 기록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상을 받은 컴포지션의 탁미경 사장은 삼성그룹 비서실 출신이다. 비서실에서 각종 기획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탁 사장은 2007년 브랜드 개발 및 그래픽 디자인 회사를 차렸다. 기업 이미지통합(CI) 작업을 주로 하는데 인터넷과 파주시, 세븐리커지노 등의 CI가 그의 손을 거쳤다. 컴포지션의 차별화 전략은 ‘기교 없고 질리지 않는 명료한 디자인’이다.

최근 중국에 디자인 법인을 차렸다. 탁 사장은 “요즘 창업이 열풍이지만 무작정 회사를 차리기보다 큰 조직에서 업무 시스템과 노하우 등을 미리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

한경BLUE CEO

한국경제신문 Blue CEO과정은 국내 최고의 문학인, 철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에게 살아있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리더의 필수덕목으로 꼽히는 인문학적 소양과 더불어 리더십, 경제, 경영에 이르기까지 CEO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익히고 공유하는 최고경영자과정입니다.

한양대 경영학부 장희영 교수의 진행으로, 교육생과 강사진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프리미엄 Blue CEO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 공·사기업의 CEO 및 고위 임원 및 각 분야 전문 리더
교육비 : 300만원
장소 : 한국경제신문 3층 (2·5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일정 : 2015년 9월 2일 ~ 11월 4일 (매주 수요일) 19:30분 ~ 21:30분
접수문의 : 02)360-4038/4045, http://ac.hankyung.com

담임교수 :

장희영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강연주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 도종환 시인, 국회의원 유대인 성공신화의 비밀 | 홍익희 배재대 교수 프로파일러의 협상법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리더십, 사람을 남겨라 | 정동일 연세대 교수 시와 연애하는 법 | 안도현 시인, 소설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